가톨릭마산

교구장 사목표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3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2@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제2343호 2019.2.3 연중 제4주일

강론

겸손과 순종

찬미 예수님!

저희 지세포성당은 마당 안쪽 화단에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세포성당을 설립하면서 함께 세운 큰 돌인데 거기에는 아주 짧고도 강렬한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너무 크게 적혀 있기에 어디에서나 잘 보이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이방인 인물을 비유로 들면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은근히 질타하십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불쾌해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늘 무시하고 하느님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멸시했던 이방인들과 비교를 당하고 오히려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예수님께서 정곡을 콕 찔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고향 사람이자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불신과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로 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그 하느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을 먼저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은총과 구원에 한 발짝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발 앞서 있는 것이 때로는 하느님을 더 열정적으로 알고 믿게 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도 그렇듯이 신앙도 익숙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식게하고 마비시킵니다. 이미 하느님을 좀 안다는 착각과 교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내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굳어 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나의 오만과 독선, 어설픈 앎과 경험이 하느님께 새롭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지세포성당 화단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돌에 새겨진 성경의 말씀을 떠 올려 봅니다. '겸손과 순종.' 예수님과 성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두 말씀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하느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의 큰 명절인 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김 효 베르나르도 신부 | 지세포본당 주임

주일 전례

3면 연중 제5주일 강론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2독서	1코린 12,31—13,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5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4,21-30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 가톨릭마산(교구보) '2월 3일 자'와 '2월 10일 자'는 합본으로 발행됩니다.

226차 꾸르실료(혼성)

본 당	성 명	세례명
가음동	백영칠	발렌티노
	이근직	타대오
가좌동	김창대	바오로
	김인선	로사
	강호전	프란치스코
	박인숙	프란체스카
거 창	이홍영	스텔라
	박일환	안드레아
	이영선	드보라
경화동	김광수	베드로
	김경식	토마스 아퀴나스
	홍성식	베난시오
고 현	김안순	안나
	최오석	안드레아
대 건	박민정	마크리나
	심재응	요한
	김진곤	다니엘
덕산동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문홍근	디모테오
망경동	고복식	토마스
명서동	김영호	이냐시오
	김광경	요셉
반 송	최성훈	베드로
	이현우	요한

226차 꾸르실료 수료자들과 봉사자들이 배기현 주교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26차 꾸르실료가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어 총 52명의 신자가 수료하였다.

본 당	성 명	세례명
북 신 동	신창식	하상바오로
산 호 동	강윤궁	마리아
삼 계	정희열	토마스 아퀴나스
석 전 동	김태영	베드로
안의선교	오준희	데레사
	유철종	야고보
양 덕 동	박찬희	로사
	김현주	레오
	한선애	마리아
옥 포	류열수	다니엘

본 당	성 명	세례명
완 월 동	김석중	스테파노
장 승 포	김인규	아니아노
	성혜경	글라라
중 동	김은수	마리노
	이재원	프란치스코
중 앙 동	김광수	토마스
진 영	서시몬	시몬
	채경수	라파엘
	김승원	마오로
	우천곤	요한

본 당	성 명	세례명
창 녕	이희형	스테파노
함 안	홍순갑	도미니코
함 양	최민경	마리아
	이은자	소피아
	김용택	요한
	서혜정	율리아
호 계	권일준	마르첼리노
	김동윤	율리아노

※본당 가나다순

마산가톨릭공부방협의회 겨울 연합캠프

마가협 겨울 연합캠프 기념촬영

마산가톨릭공부방협의회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겨울 연합캠프를 실시하였다. 6개 공부방(지역아동센터) 128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놀이동산과 실내 물놀이 체험을 하였다. 날씨는 추웠지만 놀이기구를 타며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물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저녁에는 센터별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5월에 있을 체육대회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2019.2. 5(화) 설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019.2.10 연중 제5주일

강론

세상이라는 그물

평생을 물가에서 어부로 살아온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고, 사람은 물이 아닌 물 밖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음이 기다리고, 사람이 물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향해 '낚는다'라는 표현을 하실까?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은 휴식이 아닌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것 역시 이제 일차원적인 작업이 아닌, 또 다른 형식의 일임을 뜻합니다. 그 일은 바로 이제 복음의 선포로 다가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세상의 이치와 논리 혹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선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철저히 하느님의 논리로 드러납니다. 욕심, 이기심, 성과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해방, 용서, 이해, 이타심, 그리고 너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창세기는 "세상 창조 전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 1, 2)라고 전합니다. 세상 창조 전 물은 어찌 보면 죽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물이 아닌 세상 창조 전 심연의 상태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를 건져 올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길, 제자들의 복음선포로 인해 이 세상엔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세상 속 죽음이라는 좁디좁은 그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그물이 아닌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나라가 선포됩니다.

오늘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 시대의 '나'라는 신앙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곰곰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라는 그물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윤호 베드로 **신부** | 거제지구 성지담당

주일 전례

제1독서	이사 6,1-2ㄱ.3-8
화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5,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 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교구 레지아 소년단원 제주 피정

교구 레지아(담당 :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 강동주 요한)는 우리의 미래인 소년단원을 격려하는 야외행사를 제주도 일대에서 1월 22일에서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사천, 함안, 산청'지역의 소년단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첫날은 '제주자연사 박물관', '고산성당', '수월봉', '성 이시돌 목장', '이중섭 미술관', '정방폭포' 등 관람을, 이틀날은 '황사평 성지', '에코랜드', '미로공원'과 '만장굴'을 관람 후 제주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에 강동주 단장은 큰 사고없이 일정을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소년단원이 각 성당에서 성모님의 군사로써 잘 성장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첫날 김기협 단장(모방 베드로, 제주 레지아)을 비롯한 간부들이 햄버거를 한 아름 안고 방문하여 단원들을 격려하는 등 두 평의회 간의 돈독한 우애를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레지아 간부, 소년Pr. 성인 간부 30명과 소년단원 148명 등 총 178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0년에는 '거제, 통영'지역의 소년단원과 레지아 산하 전 중·고등부 단원을 대상으로 야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 전반기 사무장 연수

교구 사무장협의회(회장 : 윤수준 마르티노)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관장 :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에서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반기 사무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사무처(총대리 : 박창균 시메온 신부)주관으로 이청준 신부의 '침묵피정과 미사, 성체신심, 미사전례 봉사, 성령의 열매' 강의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직장인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임용서류, 통합 양업 운영과 업무지침에 따른 사무 처리' 교육이 이루어졌다. 연수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파견미사로 마무리 되었으며 미사 후 합천본당 사무장에게 20년 근속 감사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연수에 참석한 사무장들은 피정을 통해 받은 은총과 교육으로 본당 신자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제의 한마디

"성직자 병, 아홉"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요즘 천주교회가 구역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신자들의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당 관할 구역을 정할 때도 웬만하면 '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당에 접근하기 가장 수월하게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머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석전 성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사는 동네 이름은 '석전동' 인데 본당은 '양덕성당'일 때가 있었습니다(이제 바뀌었나?). 신자들이 성당 다니기에 편리한 대로 구역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역을 정해서 교적을 관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칫 냉담하게 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목 주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당 신부님들께 사목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대상을 정해서 사목하시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역을 나누는 뜻이 신자들의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봅니다. 주민이 별로 없던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신자들의 편리함보다는 신자 수 늘리기에 집착하여 구역 다툼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자수가 늘어나면 본당 살림살이가 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있는 신자 조금 더 나누어 가지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고 '꼬시락' 제 살 뜯기 입니다. 선교를 통하여 더 많은 신자를 하느님 사랑으로 이끌고, 냉담 중인 신자들 마음에 뜨거움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생각을 줍다

강경규 안드레아 • 시인

밤늦게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잠시 지나가는 비겠지 생각하며 우산도 없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바짓가랑이는 젖어 들고 캄캄한 밤하늘에는 꿍쿵 꾸꽝 쾅! 천둥이 치고 번쩍! 번갯불이 캄캄한 밤하늘의 배를 새파랗게 갈라놓았다. 비는 쉽게 그칠 기세가 아니었다. 순간 피로감과 짜증이 턱밑까지 밀려왔다. 고장 난 자동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다. 조바심 낼수록 시간은 더디 흐르고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자포자기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쳐 갔다.

아! 이렇게 퍼붓는 비가 가뭄으로 애태우는 곳,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목마른 대지에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마실 물 한 방울이 간절하지 않은가. 그들이 이 빗속으로 뛰어 들어가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다. 세상 참 고르지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하느님은 왜? 라는 의문으로 번졌다. 나는 세상에 만연한 불공평과 불평등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들었다.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생각이 그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섭리와 신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오 10:34)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어쩌면 칼이란 길든 완고한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일 것이다. 변화는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며 거부할 수 없는 큰 계획의 정화작업일 것이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에도 짜증과 화부터 났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작은 걸림돌에만 걸려도 툭툭 불거지는 면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넘쳐흐를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쩌면 내게도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감사와 나눔보다는 더욱 축적하려는 인간적 욕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의 가뭄과 궁핍은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지냈는가 하는 생각으로 깊어진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칼이며, 신비의 샘이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공평은 인간들이 이루어내야 할 몫이라고 굵은 빗속에서 속삭이신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의 얼굴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뜨겁게 내리고 있었다.

기억할 사제

2. 2.(토) : 故 차기병 신부 31주기
2. 6.(수) : 故 박두환 신부 24주기

故 김민수 유스티노 신부 6주기 기일 미사

일 시 : 2. 7.(목)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묘역
문 의 : 양덕동성당 사무실
055.292.6561, 010.3886.6047

※ 미사 후 점심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전국 총대리 회의 ::

일 시 : 2. 12.(화) ~ 13.(수) 1박 2일
장 소 : CBCK

:: 재무평의회 ::

일 시 : 2. 12.(화) 10:00
장 소 : 교구청

:: 지구장 본당 방문 ::

2. 12.(화) 구암동, 산호동, 장재동
하대동, 상평동, 옥봉동
2. 13.(수) 망경동, 칠암동, 진교, 하동
2. 14.(목) 석전동, 회원동

:: 본당 사목 방문 ::

2. 14.(목) 사파동, 양곡

교 구

■ **2019학년도 예비신학생·여성소 모집**

기 간 : 2월 동안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피정**

일 시 : 2. 6.(수)~7.(목) 1박 2일
장 소 : 성혈 영성의 집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신앙대학 개강 및 입학미사**

일 시 : 2. 9.(토)~10.(주일)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교리교사 동계피정**

일 시 : 2. 9.(토)~10.(주일) 1박 2일
장 소 : 산청성심원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예비신학교 지원반 모임**

일 시 : 2. 10.(주일) 10: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11차 청소년 성령세미나**

일 시 : 2. 15.(금)~17.(주일)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제436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2. 17.(주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기관 · 단체

■ **최재상(마티아) 신부 5번째 개인전**

기 간 : 2. 1.(금)~3. 1.(금)까지
장 소 : 파티마병원 갤러리
내 용 : 십자가의 길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월 봉사자 월례회**

일 정 : 2. 11.(월) / 장 소 : 하대동성당
내 용 : 13:00 – 성체조배와 성령의 열매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 14:00 – 미사,
15:10 – 봉사자 월례회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관심있는 전신자 / 문 의 : 010.3903.8234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2. 10.(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성가피정**

일 시 : 2. 17.(주일) 13:00~17:00
장 소 : 사파동성당
강 사 : 이종철(베난시오) 신부
참가비 : 일만 원
문 의 : 사파동성당 사무실 055.281.9303

■ **향심기도 입문 피정**

일 시 : 2. 18.(월) 10:00~19.(화) 15:00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마 감 : 2. 13.(수) / 참가비 : 9만 원
문의 및 신청 : 055.221.1891

■ **194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2. 22.(금) 19:00~24.(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195차 ME 주말 : 4. 26.(금)~28.(주일)
- 196차 ME 주말 : 6. 14.(금)~16.(주일)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 안내**

필리핀 공동체미사(영어와 타갈로그어)
일 시 : 매 주일 14:30/ 장 소 : 칠암동성당
일 시 : 매 주일 15:00
장 소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일 시 : 매주 토 19:30/ 장 소 : 장평성당
베트남 공동체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 주일 12:30/ 장 소 : 칠암동성당
일 시 : 매 주일 18:00/ 장 소 : 명서동성당

이안 디자인
디자인팀 ian21.com
문화사업팀 gil1004.com
디자인•출판•인쇄
각종출판물•소식지•보고서•카달로그
리플릿•팜플렛•삽화•일러스트 제작
055)264.4627, 010.9876.5000

살레시오 젊음의집 상담실
일반 및 모래놀이 상담/ 집단 상담/ 부부상담/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학습·성격유형검사/ 트라우마 치유/ 교회 내 프로그램
문의 055)255-8295

온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병원장 강여화(데레사)
뇌졸중·수술 후 재활/ 암·노인·치매 병동
진주에서 15분, 사천 IC 3분
055)855-8557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3/3 발칸반도 12일 360만원
▶ 3/11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3/14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 3/29 동부유럽 12일 36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웰빙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SM 수맥 흙(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동티모르 공동체미사

일 시 : 매월 셋째 토 20:30
장 소 : 태평동성당
문 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4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005.9028

■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 시 : 2. 8.(금) 18:00~10.(주일) 15:00
장 소 : 삼성산 피정의 집
강 사 : 윤민재 베드로 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내 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 의 : 010.7752.0194

■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 2. 13.(수)까지(우편신청가능)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홈페이지 : http://www.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문 의 : 02.745.833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2. 14~16/ 2. 19~22/ 3. 1~3/ 3. 5~8/ 3. 11~13/ 3. 19~22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일 정 : 2. 16~18(한라산눈꽃산행)/ 2. 22~24(눈꽃산행)/ 2. 25~27, 3.1~3, 3. 8~11(추자도)/ 3. 20~22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2019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안내

일 시 : 8. 13.(화)~15.(목) 2박 3일
장 소 :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대 상 :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20명
참가비 : 8만 원
문 의 : 02.2268.7103

■ 제29회 한국가톨릭 매스컴 대상 공모

접 수 : 4. 30.(화)까지
문 의 : 02.460.7626
주 최 :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 시 : 3. 16~17/ 4. 13~14 (1박 2일)
2. 21~24/ 3. 21~24 (3박 4일)
2. 12~20/ 3. 1~9 (8박 9일)
4. 23~6. 1/ 6. 17~7. 26 (40일)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신 청 : 010.4906.5722, 031.953.6932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 간 : 3.~12.(2월 예비학교)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 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문 의 : 02.828.3600
www.donbosco.ac.kr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 의 : 사목국 055.242.6776

■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하는 2019년 사순시기 묵상집 발행 ■

구 성 :
·『찬미받으소서』 해설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환경·생명 십계명
·『찬미받으소서』 주요 부분
·환경 관련 글과 실천사항
·환경 십자가의 길

신청 마감 : 2. 15(금)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2. 11.(월) 19:00	월남동성당	너와 나의 관계(타는 지옥인가?)	유영봉 몬시뇰(야고보)	유영봉 몬시뇰(야고보)	010-5072-5612
창원지구	2. 11.(월) 19:00	반 송 성 당	새로나게 하소서	황인숙(마리아, 서울대교구)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수도회)	010-4553-7425
진해지구	2. 11.(월) 19:00	중앙동성당	주님께 대한 확신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7566-944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 9.(토) 14:00 /2. 10(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 16(토) 16: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그리스도의 성혈흠숭수녀회	2. 17(주일) 14:00	옥계본원	010-4872-9430	–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5월 1일 13일 395만원
바오로사도 전도여행지
터키 · 그리스 성지순례
■ 5월 24일 13일 415만원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 청 : 055)391-1205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5/7, 6/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원)
◈ 3/18, 4/22 성모님발현 13일 (389만원)
◈ 3/19, 5/12, 6/23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 3/17, 4/7, 5/5 다 낭 5일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다니엘서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묵시默示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암시를 제공했다는 의미다. 희랍어 아포칼립시스Apocalypsis의 번역으로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가린 걸 공개하다'라는 뜻이다. 천기누설天機漏洩과도 통한다. 신약성경 묵시록도 미래상황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았다. 숱한 논쟁의 원인이 된 이유다. 지금도 그렇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재산을 바쳐라." "내가 재림예수다."이렇게 외쳤던 이들은 모두 묵시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나름의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니엘-렘브란트, 출처 : Google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이다. 오랫동안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당시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처음부터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저자는 기원전 2세기 인물로 확인되었다. 누군가 다니엘 이름으로 작품을 남겼다고 보는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유대인은 희랍세력의 통치를 받았다. 지배자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였다. 에피파네스Epiphanies로 알려진 악명 높은 왕이다. 에피파네스는 신이 등장했다는 뜻이다. 자신을 신격화한 이름이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했다. 유대인은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음서에도 이 용어는 등장한다(마태 24,15).

다니엘서는 이런 상황의 유대인을 격려했던 책이다. 신앙을 독려하며 박해자는 결국 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침내 유다 마카베오 가문의 등장으로 통치세력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다. 이스라엘은 오랜 염원 끝에 독립을 이룩한 것이다(기원전 164년). 하스모니아 왕조의 출발이다. 성전에 세워진 제우스 상은 철거되었고 엄숙하게 속죄제가 바쳐졌다. 모든 지파는 거국적으로 환영했다. 훗날의 하누카Hanukkah 축제다.

다니엘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과 14장은 제2경전으로 분류된다. 1~6장은 역사적 인물 다니엘에 관한 기록이며 7~12장은 그의 환시에 관한 증언과 해설이다. 상징적인 비유와 환상적인 문체로 박해세력의 종말을 전하고 있다. 육신 부활과 사후세계 암시도 구약에선 첫 등장이다. 자연스레 신약의 묵시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다니엘Daniel은 판단을 뜻하는 단Dan과 하느님을 뜻하는 엘El의 합성어다. 미국과 유럽 통계에서 언제나 10위안에 들 만큼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다.

2019년 마산교구 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김현주 율리아나 ·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작년에 한국교회는 평신도 희년을 지냈는데 우리 교구는 올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교구 내 모든 기관, 단체는 연간 사업을 계획할 때 그해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교서와 방향을 같이하는데 이로써 가톨릭교회가 하나임을 경험하게 된다. 2019년 주교님은 우리가 생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함으로써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신자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신 만큼 우리도 이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구 평협 차원에서 올해 중점 실천사항으로 '봉사와 환경 살리기, 특히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일반 세제 대신 EM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기'로 정한 만큼 본당들과 제 단체들도 사목회의 등을 통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실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재단은 2018년을 '플라스틱 대란'의 해로 명명했다. 특히 중국발 플라스틱 대란과 고래 사체에서 발견된 1000조각의 플라스틱 뉴스는 국내외 환경 분야 5대 환경뉴스 중 각각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인당 1년 동안 약 42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비닐봉지를 소각장에서 태우면 미세먼지나 다이옥신이 발생하게 되고 매립을 하게 되면 분해되는데 최소 100~500년이 소요된다. 비닐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황님의 두 번째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회개를 말할 때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에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자연에 잘못한 것도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피조물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 행동, 지나친 소비, 과식, 무절제한 에너지 남용을 자제하여야 할것이다.

생태적 회개는 '절제의 덕'과 뗄 수 없는 관계로써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본받아 과도한 부와 극도의 빈곤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적게 소유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획기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